

목포해수청, 추석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 시행

- 여객선 운항횟수 258여회 증회, 15만명 이용 예상 -

목포지방해양수산청(청장 김태환)은 추석 연휴를 맞아 귀성객과 섬 주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오는 13일(금)부터 18일(수)까지 6일간 “추석연휴 연안여객선 특별교통 대책”을 시행한다.

이 기간 동안 증선·증회를 통해 평소보다 258여 회가 증가된 2,483회를 운항하여 여행객의 이용 편의를 도모한다.

귀성객이 몰리는 ‘완도-청산’과 ‘당목-서성’ 항로는 여객선 1척이 각각 추가 투입되고, ‘남강-가산’, ‘화홍포-소안’ 등 총 7개 항로는 운항횟수가 늘어난다.

이번 특별교통 대책 기간 동안 이용객은 최근 5년 평균보다 2% 증가한 15만 1천명으로 전망되며, 특히 연휴 시작인 14일(토)에는 3만 3천여명이 몰리면서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.

목포해수청은 추석 연휴에 앞서 여객선과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완료했으며 대책기간 중에는 특별교통 대책반을 운영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예정이다.

목포해수청 관계자는 “추석 연휴 안전하고 원활한 해상교통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.”며 “여객선 이용 시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고, 출항 10분 전에는 승선을 완료하는 등 여객선 승하선 혼잡에 대비를 당부드린다.”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목포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	책임자	사무관	김철경 (061-280-1640)
		담당자	주무관	김일선 (061-280-1642)